

### 대덕 신청사 건립 순항 안전·품질 관리 강화해

대전 대덕구는 18일 연속동 도시개발사업 지 내 신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공정 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하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대덕구 신청사는 연속동 241번지 일원 공공청사 용지에 총사업비 1598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부지면적 1만 9506㎡, 연면적 4만 8810㎡ 규모로, 지하 2층~지상 9층으로 건립된다.

신청사는 지난 2024년 10월 지열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에 본공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지하 기초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덕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청사와 별도로 구의회, 보건소를 별도 형태로 배치해 기능별 독립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행정 수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주민 소통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채봉 기자

### 불길 뚫고 진압과 수색 과몰 소방로봇 투입한다

충남도 소방본부가 800℃의 화염과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짙은 연기를 뚫고 화재 진압 및 인명 수색 작전을 펼 수 있는 무인소방로봇을 현장에 배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소방본부는 18일 정양에 위치한 충정소방학교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 도와 시군 소방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소방로봇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무인소방로봇은 소방청과 현대차그룹이 체결한 실무 협약을 바탕으로, 현대로템 다목적 전동차 무인 차량인 '에이치알(HR)-세프'를 개조한 4대 중 1대다.

도 소방본부는 이 무인소방로봇을 아산에 위치한 119특수대응단에 배치했으며, 나머지 3대는 중앙119구조본부와 경기소방본부가 보유 중이다. 전차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무인소방로봇은 폭 2.1m, 길이 3.4m, 높이 1.9m에 중량은 2.3톤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km, 방수 거리는 50m 이상이며, 1회 충전 시 5시간 동안 운용할 수 있다. 1대 당 가격은 약 24억 원이다.

5대의 카메라와 4대의 레이더, 3대의 라이더 등을 통해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짙은 연기 속에서도 발파 지점이나 구조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 시연회는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를 가정해 실시했다. 화재진압 시연에 앞서서는 무인소방로봇 명명식을 가졌다.

전 직원 공모를 통해 '단비'로 정하고, 행사에 맞춰 로봇 본체에 명판을 부착했다.

이현진 기자

## 충남 AI 대전환 100대 과제 5.8조투입

#### 충남도, 보고회에서 '추진 전략' 발표...연내 실행계획·내년 예산안 세우기로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충남이 산업과 행정,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내놨다.

인프라 확충과 AI 인재 3만 명 양성, 제조 기업 AI 보급률 40% 향상,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고도화, AI·로봇 중심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 등 7대 분야 100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18일 김태흠 지사와 충남 AI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AI 특위는 '사람

중심 AI, 충남의 모든 것을 혁신하다(All in AI for Human)'를 충남 AI 대전환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략 방향 및 목표는 △AI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초격차 확보 △스마트 농축수산 실현 △미래형 바이오산업 가속 △도시·공공 편의 극대화 등으로 설정했다.

중장기 과제는 △혁신 성장 생태계 △제조 AI 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융복합 바이오 △국방 AX·양자 △AI 지역 도시 서비스 △AI 공공행정 혁신 등 7대 전략에 100 개를 제안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8곳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간다.

제조 AX 분야는 AI 팩토리 프로젝트, 기업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AX 실증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제조 기업 AI 보급률을 40%까지 향상시킨다.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은 AI를 더해 더욱 고도화한다. 스마트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AX 플랫폼과 로봇·자율화 등을 통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으로 스마트 농업 도입률을 35% 이상 달성한다.

융복합 바이오는 식물·해양 자원 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 건강 효능성 소재 및 유전체를 확보한다. 국방산업은 AI·로봇 중심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해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기술 거점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2035년까지 5조 8900억 원이다. 도는 상반기 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AI 시대에도 충남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세종시, 기업과 인재 잇는 혁신 산·학 협력!

#### 협력 강화 간담회, 바이오지원센터 및 운영법인 발전 방안과 협력 사업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내 대학 및 기업 등과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산·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와 행정청은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한 세종공동캠퍼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과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세종상공회의소, 세종테크노파크 라이선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시와 행정청 합동 투자유치 원팀 협의회 1차 회의의 일환으로 열려 바이오 지원센터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바이오 지원센터는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과 타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동물실험실과 전임상센터 등에

로 조성된 연면적 4,777㎡ 규모 특수 실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9월 준공된 이후 최첨단 장비와 기자재 등의 배치를 완료하는 대로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기관들은 바이오 지원센터를 입주대학 연구 역량과 기업 수요를 연계하는 산학 협력 체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외 바이오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바이오 지원센터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설립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살피었다. 이와 함께 시와 관내 기업·대학, 유관기관은 ▲세종공동캠퍼스-세종테크밸리 연계사업 발굴 ▲대학문화거리 조성 ▲창업벤처 네트워크 확대 추진 ▲유관기관 홍보 협력 등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관내 기업은 입주대학 인재를 활용한 맞춤형 인력 확보와 연구 협력 확대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며, 대학과의 공동 연구와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지역 인재와 기업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와 관내 대학·기업, 유관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증액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고, 기업하기 좋은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세종공동캠퍼스가 거점이 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산·학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봉 기자

## 전남여행사와 관광 마케팅 강화해

#### 충북 전남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협력 강화 간담회

충청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충북도는 18일 오송역 선하마루에서 '2026년 충북 국내 관광객 유치 전남여행사 지정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충북 관광객 유치 전남여행사는 총 7개 여행사로, 충북의 체류형·체험형 관광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를 실질적으로 이끌게 된다.

특히 충북도가 중점 추진하는 관광상품과 역점 관광지, 신규 관광지, 지역축제·행사 등을 상품에 반영하게 된다. 선정된 전남여행사에는 여행사별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 개발비, 홍보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특히 체류형, 당일형 관광상품, 충북도 지정 축제 연계 관광상품 등 다양한 유형의 여행상품 운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관광구조를 전환하고, 최근 여행 트렌드인 소규모·맞춤형 여행 지원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어가길 방침이다.

김종기 문화체육관광국장장은 "전남여행사는 충북 관광객 유치의 핵심 파트너"라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충북을 찾는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센터는 2026년도 산림청 신규연구개발사업(R&D)인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 분야 1건과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래가 기술개발' 분야 1건에 선정돼 총 국비 28억 원을 확보했다. 센터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이현진 기자

## 도심형 스마트팜 '대전팜' 확대해



대전시는 3월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대전팜' 6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성된 6개소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기술연구형 ▲테마형 ▲실증형 스마트팜 3개소에 이어 추가된 것으로, 이로써 대전시는 총 9개소 규모의 '대전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도심 공실 공간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농산물 생산·유통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도심형 미래농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해 기존 유형과는 다른 ▲사업장연계형 ▲나눔문화확산형 ▲자유제안공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장연계형은 봉봉농원

묘목카페와 ㈜그린에스테이 참여해 카페 등 기존 사업장과 연계해 농산물을 생산·활용하는 방식이다.

▲나눔문화확산형은 ㈜그린유성팜이 운영하는 공익형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농산물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다. ▲자유제안공모형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엔후레쉬㈜, ㈜에스엔, 그린팜(㈜3개소에서 운영된다.

시는 9개소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형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대전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를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영철 국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 중구다움 통합돌봄은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Ju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 ☑ 가사·식사·이동·방문 목욕지원 등 **일상돌봄서비스**가 강화됩니다.
- ☑ **주거환경 개선**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습니다.
- ☑ 거주지에서 받는 **양·한의 방문의료**자원이 확대됩니다.
- ☑ 퇴원 후도 걱정 없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찾아옵니다.
-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돌봄 사업**으로 정서 안정, 위기 예방을 돕습니다.

### 중구 온마을돌봄 사업 추진

- ☑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가 **집에서 운동과 재활교육**을 도와드립니다.
- ☑ **기존 이동지원과 함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 중구 4개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온돌건강교실**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기세요.
-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애(愛) 돌봄추진단'**이 상시 돌봄에 나섭니다.

### 문의처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 042-606-7422